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 취임

# “핑계없는 야구로 고향팬 박수 받겠다”

### 능력 향상·자율적 시즌준비...선수단에 프로자세 주문 “28년만의 귀향 감격적...감독부터 뛰고 모범 될 것”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핑계 없는 야구, 자신감, 예의’로 변화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기태 감독이 지난 30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연구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KIA 타이거즈 8대 감독으로 공식 출발했다. 박한우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허영택 단장과 주장 이범호의 꽃다발 전달식 순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김 감독은 7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다.

행운이 두 배로 오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77번을 선택한 김 감독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코칭스태프, 직원, 선수 모두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해 KIA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어떤 기쁨을 드릴지 연구하고, 꼭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기대치 보다 더 큰 환희를 이룰 수 있다”며 핑계 없는 야구, 자신감, 예의를 강조했다.

◇실수는 있어도 핑계는 없다.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게 김 감독의 신조다.

김 감독은 “프로는 핑계가 없어야 한다. 하다가 잘못될 수도, 실수할 수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왜라는 핑계는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못하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안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핑계를 대지 말라”고 강조했다.

핑계 없는 야구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시즌 준비와 자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선수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이 김 감독의 얘기다.

김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에게는 시즌이 끝나는 날이 12월31일이고,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 1월1일이다. 프로는 실력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수 있는 선수는 알아서 쉬는 것이고 목표가 있는 선수라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된다.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며 “이미 새해는 지났고 시즌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자신감을 가져라.  
새 선수들과 새 도전에 나선 김 감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두 번째로 당부했다.

김 감독은 “어려움, 아픔 등 많은 일들과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웃을 일도 많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실패가 두려워서, 결과를 두려워해서 갈 수 있는 길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큼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마음가짐이다”고 부탁했다.

“자신감”을 주문한 김 감독은 변화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김 감독은 “일단 더 나은 성적을 내면 목표로 하겠다. 전체적인 선수단 파악이나 구상이 완성 단계가 아닌만큼 지금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기에 이르지만 감독은 항상 꿈이 크다”며 “내년 시즌이 됐든, 시간이 더 걸리든 끝나고 나서 팀이 변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자신은 있다”고 밝혔다.

◇야구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일본 미야자키와 광주·함평 등지에서 훈련을 해왔던 선수들은 말쑥한 정장차림으로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김 감독이 주문한 ‘예의’의 한 모습이다.

김 감독은 “야구에 대한 예의를 부탁한다. 선수들 전체가 양복을 입고 취임식을 하는 것은 처음일 것이다.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의 정복은 유니폼이다.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정장을 입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잘 알 것이다. 이런 자리의 정복은 정장이다. 야구선수로서 품위를 높이는 의미”고 설명했다.

끝으로 보이는 예의뿐만 아니라 진정한 프로서의 예의도 강조했다. 김 감독은 “야구, 성적은 선수들에게 기본 의무이다.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인사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하다. 외적으로도 팬들에게 정중하게 대할 수 있는 프로로서의 예의를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감독은 박수받는 야구를 약속했다. 김 감독은 “우리 팀이 모든 이에게 박수를 받는 팀이 되도록 부족하지만 감독부터 뛰고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있는 선수 여러분이 가장 반갑다. 잘 부탁한다”며 “1986년 고향을 떠났다. 기차에 오르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도 느꼈는데 먼길을 돌아 28년 만에 광주로 왔다. 박수를 한번 받아 보고 싶었던 팬들이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왔다. 감독으로 기쁨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고향 광주팬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출발~” 김기태 KIA 타이거즈 감독이 지난 30일 광주 기아자동차 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KIA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이대형 KT행, 불화 아닌 팀 형편 때문” 김 감독 “투수왕국 부활에 초점...희생 불가피”

KIA 김기태 감독이 외야수 이대형의 KT행을 놓고 불거진 ‘불화설’에 대해 부정했다. ‘팀 실정’이 김 감독이 밝힌 이대형의 보호선수 제외 이유였다.

지난 30일 취임식이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대형의 KT행에 대해 “사이 좋지 않다, 미운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절대 사이가 좋지 않은 선수라고 내보내고, 사이가 좋다고 받아들지는 않는다”고 불화설을 일축했다.

이대형은 최근 발표된 보호선수 20인 외 지명 선수로 KT 위즈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다.

올 시즌 FA로 LG에서 고향팀 KIA로 동지를 옮긴 이대형은 타율 0.323, 22 도루를 기록하는 등 팀의 주전 중견수로 역할을 수행했다. 내년 시즌 군복무로 인해 유격수 김선빈, 2루수 안치

홍의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후반기 맹활약을 했던 이대형까지 KT로 이적하게 되자 논란이 일었다.

성적과 흥행에서 독특히 활약을 했던 만큼 20인 제외라는 의외의 결과에 LG 시절 감독과 선수로 지냈던 두 사람의 ‘불화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김 감독은 “눌러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명단에서 제외할 때 감독으로서 마음이 어땠겠는가. 다른 8개 구단 감독님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팀 실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언급한 김 감독은 먼저 이대형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대형은 취임식이 열린 이날 오전 경기장에 나와 라커룸에 있던 자신의 집을 정리했다.

KIA는 이번 보호선수 명단 작성을 놓고 ‘투수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부상과 부진했던 육성으로 ‘투수 왕국’ 부활이 시급한 목표로 떠오른 데다 내년 시즌부터 144경기로 경기 수가 늘어나면서 투수력이 최우선 전력이라는 판단이었다. 또 KT가 내·외야 자원보다는 마운드에 눈길을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전략이기도 했다. 특히 재활을 끝내고 그라운드 복귀를 노리고 있는 투수 자원들이 영입 후보로 언급되면서 야수진 명단은 최소화하고 투수들을 대거 묶었다.

김 감독은 팀 내 육성을 통과구로 언급했다.

김 감독은 “리빌딩이라고 해서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 팀 성격도 나와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맞춰야 하지만 팀 내 육성은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